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2. 20세기 (미술)의 “네 대부들”

베르너 호프만(Werner Hofmann, 1928-2013)은 비인 출신으로 1969년부터 1990년 사이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관장이었고, 동료들이 “가장 탁월한 유럽인 미술사와 이론학자”로 평가한 미술사학자. 그는 1966년 그의 저서 『현대미술의 기초들: 그 상징적인 형태들로의 안내(Grundlagen der modernen Kunst. Eine Einführung in ihre symbolischen Formen)』에서 세잔(Paul Cézanne), 폴 고갱(Paul Gauguin),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와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를 “20세기의 네 대부들(Vier Patres des 20. Jahrhunderts)”이라고 칭함. 그는 1890년부터 1906년 사이에 사망한 이 네 화가에게서 20세기 미술의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봄.

	Paul Cézanne	Paul Gauguin	Vincent van Gogh	Georges Seurat
출생	1839	1848	1853	1859
사망	1906	1903	1890	1891
국적	프랑스	프랑스	네덜란드	프랑스

이 네 미술가들의 미술은 신인상주의(Neo-Impressionism)나 후기인상주의(Post-Impressionism)로 불림. 이들 중 쇠라의 작품은 점묘파(Pointillism)로 불림.

그러나 신인상주의라는 명칭에 적합한 미술가는 인상주의 미술가로 시작해 인상주의 미술에서 사라진 시간성, 지적 분석, 덩어리감, 3차원적 특성 등을 부활시킨 쇠라임. 실제로 이 명칭은 1886년 독립미술가협회전에서 그의 작품 <그랑 잣뜨 섬의 일요일 오후>(1884-86)를 본 프랑스 미술비평가 펠릭스 페네옹(Félix Fénéon)이 만든 것임.

한편 Post-Impressionism은 영국인 화가이자 형식주의 미술비평가인 로저 프라이(Roger Fry)가 주도함. 그는 1910년 “Manet and the Post-Impressionists”라는 제목으로 런던의 그라프톤 화랑(Grafton Gallery)에서 영국에 처음으로 고갱, 마네, 마티스(Henri Matisse), 세잔과 반 고흐의 작품을 포함해 100여점의 프랑스 미술을 소개함(반 고흐는 프랑스인이 아니나 프랑스에서 활동). 그는 1912년에는 같은 화랑에서 “두 번째 후기인상주의 미술전”을 개최.

프라이의 첫 전시 제목과 마네를 따로 분리하고 세잔, 고갱, 반 고흐와 쇠라만이 아니라 마티스의 작품을 Post-Impressionism으로 칭한 것은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음. 첫째, 마네는 이 전시의 다른 미술가들과 달리 유럽 미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바로 직전의 전통을 쇄신. 반면 다른 미술가들의 경우 유럽 전통을 단선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과거 전통을 재고하거나 차용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민예품이나 동시대 미술 등, 유럽 밖의 미술을 수용하기도 함. 이것은 형식주의적 순수미술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사실과 이 전시에 소개된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인상주의를 거치지 않은 점과 이들의 작품의 특징들은 post를

later보다는 after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Post-Impressionism은 “후기인상주의”보다는 “인상주의 이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이 용어의 독일어도 Nach-Impressionismus로 nach는 영어로 after의 의미임. 한편 위의 미술가들은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함께 정기전시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아 한 명칭으로 묶는 것은 무리임.

베르너 호프만이 세잔, 고갱, 반 고흐와 쇠라를 “20세기의 네 대부들”로 칭한 것은 이 미술가들의 미술이 서양미술에서 19세기까지 추구했던 것들을 수렴한 점과, 이들 통해서 이들의 미술이 20세기에 19세기 이전과 다른 미술이 태어나게 된 토양이 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임.

반면 1929년 개관한 뉴욕 현대미술관의 관장으로 개관전을 <Cézanne, Gauguin, Seurat, Van Gogh>로 연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는 이 “네 대부들”을 다르게 해석. 그는 세잔을 중심에 놓음. 이러한 경향은 그가 1936년에 기획한 전시 <Cubism and Abstract Art>에도 반영됨. 그가 이 전시를 위해 만든 도표는 위의 네 화가를 기하학적 추상미술을 주류 미술로 규정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평가했음의 증거가 됨. 그는 미술사의 흐름을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

MoMA 관장 Alfred H. Barr가 자신이 기획한 1936년 전시

<Cubism and Abstract Art>를 위한 도표

